

2020 콘텐츠 대상 - 스토리 부문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 전원은 응모하신 작가님들의 노력과 정성을 충분히 느끼면서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원작의 발견’에 주안점을 두면서, 작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힘 또한 유념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심사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열띤 심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다양한 소재, 장르, 배경 등을 활용해 훌륭한 필력으로 이야기를 잘 풀어냈지만 해당 장르의 틀을 뛰어넘는 독창적인 작품이 없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장시간의 심사 끝에 대상의 영광을 차지한 <외계인 게임>은 스릴러 장르의 장점을 훌륭한 필력으로 잘 살려내 시종일관 극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특히 다섯 개의 스토리를 각각의 인물들의 관계와 버무려 교집합을 이뤄냄으로써 하나의 결말로 멋지게 이끌어낸 점이 많은 심사위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출판 분야의 제작가능성도 높지만 뛰어난 작가의 역량과 한 편의 단편을 보는듯한 완성도 높은 에피소드들은 영상 분야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품추 정원사>은 소재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돋보였고 친숙한 역사적 소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상력이 작품을 보다 흥미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여자, 내 무덤>은 새로운 소재와 설정이 도입부부터 몰입감을 일으키게 만들었으며 각 인물들의 갈등 속에서도 결국 이해와 성찰, 상처의 치유로 나아가며 비극적인 이야기에 아름다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작가의 탁월함이 돋보였습니다.

<계씨네 평양냉면>은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가족의 가치를 담아낸 수작으로 아이디어가 매우 재미있고 재치 있는 문장이 가득해 온 가

죽이 즐길 수 있는 드라마로 제작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치 있는 대사, 빠른 호흡으로 속도감 있는 전개가 매력인 <완벽한 가족>은 에피소드의 확장성이 좋고, 캐릭터 구성이 입체적이고 인상적이라 단편 드라마나 영화는 물론 장편 드라마로의 확장까지 가능한 점이 심사 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이끌어 냈습니다.

<드림메이커>는 도입 부분부터 명확한 설정과 전개가 뛰어났으며 강력한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아이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획력이 돋보였습니다. 현실적인 통찰을 통해 아이들 또는 현대인들이 겪는 고민과 갈등의 화해를 모색하는 점 또한 강점이었습니다.

<하드캐리박동팔>에는 슬픔, 기쁨, 유쾌함, 청춘, 우정, 가족, 애정, 희생 그리고 음악이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합이 잘 맞는 밴드처럼 여러 감동을 선사하는 수작이었습니다. 폭넓은 시청자 층을 유도해볼만한 시장성이 기대되는 작품이었습니다.

<라이브>는 기존 소재들의 새로운 조합과 전개가 신선했으며 밀도 있는 스토리 전개와 빈틈없는 플롯, 흡입력 있는 장면 연출은 또 하나의 한국형 괴물 스릴러의 탄생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또한 출판 및 웹툰으로의 확장성도 뛰어났습니다.

<충독의 요리사>는 시대적 상황과 인물의 내적 갈등의 관계가 잘 설정되었고 작가의 노력과 내공이 느껴지는 완성도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요리에 대한 세부적인 식견을 이야기에 녹여 넣은 점이나 형제의 협력과 배신이 반전을 거듭하는 부분은 작품의 흡인력을 더하는 요소였습니다.

<꿈 사냥꾼 : 몽견사>는 판타지적 세계관이 잘 확립되어 있고 전통과 역사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탄탄하여 인물관계, 배경, 사건 등 볼거리가 매우 풍부했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픽션이 개연성을 획득하고 있으며 만화는 물론 영상화 쪽으로도 확장성이 매우 큰 작품이었습니다.

<재인과 황제>는 다소 낮선 설정이지만 퓨전 멜로 사극의 구조를 잘 갖추

고 있으며 매력적인 캐릭터 설정, 흥미로운 로맨스와 짜임새 있는 스토리 열개로 폭 넓은 독자층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의성 있는 소재와 주제를 결합한 <우먼 인 하드보일드>는 주인공의 감정을 장면화 하는데 성공하였고 시대적 분위기 묘사가 탁월해 흡입력이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영화는 물론 드라마로도 가능성이 높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현>은 인물 관계에서 운명적인 설정과 극을 끌어가는 문장력과 구성력은 매우 높으며 당시 시대 상황이나 거리 풍경, 전통 연희, 생활사, 옛말 등에 대한 학습이 단단하고 풍성하였습니다. 출판은 물론 영상화에도 잘 어울리는 작품이었습니다.

만화적 상상력이 뛰어났던 <세상의 끝>은 한정된 소재 안에서도 숨 가쁜 구성, 촘촘한 묘사 등 디테일이 돋보였습니다. 만화 분야에서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좋은 반응이 기대되며 영화 분야로의 확장성도 높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별똥별이 산다>는 귀여운 소재를 활용해 판타지로맨스의 장르를 잘 살렸고 다음 에피소드가 궁금해지는 힘이 작품에 내재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전체적인 세계관을 구축해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 총 15편의 작품을 2020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 스토리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작품의 작가님들께 심사위원 전원은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실력 있는 제작사와 매칭 되어 대중들에게 좋은 작품으로 선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안타깝게 수상하지 못한 작가님들 또한 또 다른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더욱 정진하셔서 꼭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